

※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협력기관과 장학생, 그리고 아산상 수상자들을 찾아 이들의 현재 모습을 소개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마치 필요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죠. 언어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들은 동등한 사람입니다.”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상임고문인 이정호 신부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사는 방식이나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명제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이정호 신부는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제25회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지난 2022년 사제 정년 퇴임을 계기로 이정호 신부는 그동안의 활동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고향을 돕는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 ‘대한성공회 사제’ 이정호 신부는 은퇴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샬롬의 집’ 이정호 신부는 여전히 현역이다.

남양주의 한센병 환자, 이주노동자와 함께한 32년

이정호 신부는 1989년 사제 서품을 받은 이듬해 남양주 화도읍 녹촌리 성생원에 관리 신부로 부임해 한센병 환자들을 도왔다.

그 사이 이곳의 풍경은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다. 하나 둘 가구공장이 들어서며 한가한 시골풍경은 대규모 가구단지로 변모했고, 이주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왔다.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를 드리고 싶다’며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이정호 신부는 영어 미사를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성당으로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어려움을 접하게 됐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벽은 만만치 않았다. 그 벽을 깨기 위해 이정호 신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센터를 짓고 무료진료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2000년대 들어 마석가구공단 규모가 커지고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자 국가별 공동체를 만들고 문화 페스티벌, 체육행사 등도 지원했다.

2005년 그가 일궈낸 이주민 쉼터인 ‘샬롬의 집’은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 이주노동자 지원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상임고문 이정호 신부는 32년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2022년 이정호 신부 청년 퇴임 예배에 함께한 이주노동자들.

센터인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가 되었고, 지금은 ‘이주민연대 살림의 집’이 되어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노동현장의 고충 처리, 결혼이주 여성과 이주민 아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이주노동자 권익과 복지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코리안 드림 아닌 방글라데시 드림을 만들자

“이주노동자는 단지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적당히 일하러 가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갖은 노력 끝에 우리나라에 오는데, 강제 추방당하고 크게 좌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을 들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을 도울 일이 없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호 신부는 고향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2014년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주를 결심하는 이유, 어떤 경로로 오는지 등을 보다 자세히 알면 한국 문화를 가르치거나 직업 선택을 도울 수도 있고, 방글라데시 지역사회의 발전도 도울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는 한국을 기억하는 귀환이주노동자들의 모임 ‘KBFS(Korea-Bangladesh Friendship Society)’가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은 서로 도우며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한 일에도 힘쓰고 있었다. 그들을 만나고 방글라데시를 직접 경험하며 이정호 신부는 ‘코리안 드림을 이루겠다고 한국에 무작정 들어오는 것보다 방글라데시에서 먼저 새로운 희망을 찾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정호 신부는 현지인들의 지원으로 KBFS 사무실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라는 청소년 국제협력캠프를 만들어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다. 현지에서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며 서로를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어

이정호 신부는 방글라데시 현지인들과 의논하며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다. 통기바리 지역의 땅을 기부 받아 그곳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작업장 ‘House of Humanity’와 진료소를 짓기로 한 것이다. 현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조건 물품을 나눠주기보다 조금이라도 일거리를 만들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는 취지다. 장애인도 수작업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수공예품 조립, 기념품 제작 등 일거리를 만들어 생산한 상품은 현지의 기념품 상점과 국내외의 다양한 유통망을 이용해 판매하도록 하고, 작업장 한 칸에는 응급치료와 의료봉사가 가능한 진료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살림의 집을 통해 체류 이주민 지원사업, 정착지원사업, 청소년 국제협력캠프 등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로 가능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도움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또 다른 이주노동자를 돕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지역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후원자들이 돕고 있죠. 그 연대의 구심점으로 저와 살림의 집이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요. 어떤 형태든지 우리 사회에 오는 이주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글 편집부**



살림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교실 현장.